

# 근대5종 전용태-김선우, 세계선수권 혼성 계주 금메달

펜싱 27승·승마 300점 만점·수영·레이저 런도 우승

전용태 대회 2관왕...한국 금2·은1·동1 '역대 최고 성적'

한국 근대5종 남녀 간판인 전용태(광주광역시청)와 김선우(경기도청)가 세계선수권대회 혼성 계주 금메달을 합작했다.

전용태-김선우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개최된 2022 국제근대5종연맹(UIPM) 세계선수권대회 혼성 계주에서 펜싱, 승마, 수영, 레이저 런(육상+사격) 점수 합계 1393점으로 우승했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해 서창원(전남도청), 김세희(BNK저축은행)에 이어 혼성 계주 2연패에 성공했다.

한국 근대5종이 세계선수권대회 한 종목에서 2회 연속 우승한 건 남자 계주 전용태-황우

진(2016-2017년) 이후 두 번째다.

전용태는 정진화(한국토지주택공사)와 남자 계주 금메달에 이어 또 한 번 정상에 서며 대회 2관왕에 등극했다.

김선우는 여자 단체전 은메달, 김세희와 나선 여자 계주 동메달에 이어 대회 세 번째 메달을 추가했다.

전용태-김선우는 혼성 계주 첫 종목인 펜싱 랭킹 라운드에서 27승을 거두며 여유 있게 출발했다.

이어진 승마에서 300점 만점을 얻었고, 수영에서도 선두권을 이어간 뒤 레이저 런에서 2위 팀보다 42초나 앞서 출발하며 우승을 따냈다.

둘은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조셉 총이던 영국(1380점)을 제쳤다.

전용태는 경기 후 UIPM과 인터뷰에서 "2022년 시즌은 정말 우리 한국팀에게 대단한 한해가 됐다. 개인전에서 아쉽게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남자 계주와 혼성계주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해 매우 기쁘다. 이제 천천히 내년 시즌을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선우는 "펜싱 랭킹라운드 순조로운 출발을 승마, 수영 그리고 마지막 레이저 런까지 이어 나가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전용태 선수와 함께 우리 팀에 추가 메달을 안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혼성 계주를 마지막으로 한국은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의 역대 최고 성적을 남겼다.

종합 시상상은 없었지만, 대회 출전국 중 가장 많은 메달을 수확했다.



근대5종 세계선수권 혼성 계주 금메달을 딴 전용태-김선우. (사진=대한근대5종연맹 제공)



## 김주형, PGA시드권 사실상 확보...로켓 모기지 7위

김주형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로켓 모기지 클래식에서 마지막 날 9언더파를 몰아치며 7위에 올랐다.

김주형은 1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의 디트로이트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보기없이 이글 1개, 버디 7개를 묶어 9언더파 63타를 쳤다.

최종 합계 18언더파 270타를 기록한 김주형은 단독 7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김주형은 간신히 이번 대회 컷 통과에 성공했지만, 3, 4라운드에서 15언더파를 몰아치면서 톱10 진입에 성공했다.

김주형이 PGA 투어 대회에서 톱10에 진입한 것은 지난달 제니스스 스토티시 오픈에 이어 두 번째다. PGA 투어 임시회원으로 대회에 나서고 있는 김주형은 다음 시즌 정회원 자격을 사실상 확보했다.

이번 대회 결과로 페덱스컵 포인트 90점을 추가해 417점이 된 김주형은 페덱스컵 포인트 순위에서 100위 초반대까지 순위가 올라갔다.

올 시즌 페덱스컵 포인트 순위에서 정회원 125위보다 점수가 높으면 다음 시즌 정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김주형은 다음주 열리는 정규시즌 최종전 원뿔 챔피언십에서 컷 탈락해 포인트를 추가하지 못해도 125위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전날 6언더파를 친 김주형은 이날도 패조의 컨디션에 휩쓸렸다.

1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으며 기분 좋게 출발한 김주형은 4번홀(파5)과 5번홀(파3)에서 연속 버디를 낚았다. 7번홀(파5)과 8번홀(파4)에서도 연달아 버디를 잡으면서 전반에만 5타를 줄였다.

10번홀(파4)에서는 이글을 기록했다. 약 115m 거리에서 친 두 번째 샷이 홀킥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단숨에 두 타를 줄였다.

13번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한 김주형은 17번홀(파5)에서도 버디를 잡았다.

김주형은 경기 후 "만족스러운 플레이를 했다. 실수도 많이 없었고, 실수가 나와도 잘 극복해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차기 시즌 PGA 정회원 자격을 사실상 확정할 것에 대해서는 "어릴 때 PGA 투어에서 치고 싶다는 마음 뿐이었는데 현실로 다가오니 꿈만 같다. 빨리 내년에 PGA 투어에서 경기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

3라운드까지 공동 7위였던 김시우는 마지막 날 추중하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4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4개로 2언더파 70타를 친 김시우는 최종 합계 15언더파 273타로 공동 14위에 머물렀다.

강성훈은 10언더파 278타로 공동 37위에 자리했다.

우승은 26언더파 262타를 친 토니 피나우(미국)의 차지가 됐다. 최종 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친 피나우는 공동 2위를 5타 차로 여유있게 따돌렸다. 지난주 3M오픈에 이어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한 피나우는 투어 통산 4승째를 거뒀다.

## '세월 무상' 오승환, 끝판대장 면모 어디로...7월에만 4블론



'끝판대장' 오승환(40·삼성 라이온즈)의 부진이 깊어지고 있다.

오승환은 7월 한 달 동안 7경기에 등판했으나 한 번도 세이브를 수확하지 못했다. 2패 1홀드 평균자책점 12.79가 오승환이 7월에 받아낸 성적표다.

전반기에 한 차례에 불과했던 불륜세이브를 한 달 동안 4번이나 저질렀다.

7월의 출발부터 좋지 않았다. 지난달 첫 등판이었던 7월 6일 대구 LG 트윈스전에서 9-9로 맞선 9회초 등판, 선두타자 유강남에 좌월 솔로 홈런을 맞고 패전 투수가 됐다.

지난달 9일 대구 SSG 랜더스전에서는 9-5로 앞선 8회말 2사 1, 2루 상황에 등판해 1% 이닝 3실점으로 흔들렸다. 볼넷으로 만루 위기를 만든 후 밀어내기 볼넷을 2개나 쳤고

박성환에 섹슬이 3루타를 얻어맞았다. 9회초를 무실점으로 막기는 했으나 이미 SSG에 역전을 허용한 뒤였다.

오승환은 7월 12일 수원 KT 위즈전에서 악몽을 겪었다. 3-2로 앞선 9회말 등판해 배정대에 동점 솔로포를, 앤서니 알포드에 끝내기 홈런을 얻어맞았다. 오승환의 연속타자 홈런을 맞은 것은 프로 입단 첫 해였던 2005년 이후 17년 만의 일이었다.

후반기가 시작된 후에도 오승환은 안정을 찾지 못했다.

7월 22일 고척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삼성이 2-1로 앞선 9회말 세이브 상황에 등판한 오승환은 선두타자 송성문에 동점 솔로 홈런을 맞아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

오승환이 자주 흔들리자 굳건한 신뢰를 보

## 7월에 7경기 등판해 2패 평균자책점 12.79 '부진'

이던 허삼영 삼성 감독도 생각을 바꿨다. 허 감독은 22일 경기 후 "이름값에 연연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끔 기용하겠다. 오승환을 계속 믿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했다.

다음 등판인 지난달 27일 포항 한화 이글스전에서 오승환은 6-3으로 앞선 6회초 모습을 드러냈다. 오승환이 7회 이전, 즉 1-6회 사이에 등판한 것은 2010년 6월 17일 사직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5회 등판한 이후 12년 1개월, 4423일만이었다.

어색한 등장이었지만 오승환은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홀드를 수확했다.

오승환은 하루 뒤인 7월 28일 한화전에서 연장 10회초 등판해 역시 1이닝을 무실점으로 책임졌다.

허 감독은 오승환이 2경기 연속 무실점 투구를 펼치자 7월 31일 대구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다시 오승환에 뒤틀음을 맡겼다. 4-3으로 앞선 9회초 오승환을 투입했다.

오승환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1이닝 2실점으로 흔들려 롯데의 역전을 허용했다. 1사 1루에서 이학주에 동점 적시 2루타를 맞았고, 고승민에 역전 적시타를 헌납했다. 삼성이 9회말 동점을 만든 뒤 연장에 가지 않았으면 오승환이 또 패전 투수가 될 뻔했다.

오승환은 '살아있는 전설'이다. KBO리그 각종 세이브 관련 기록은 오승환을 빼놓을 수 없다.

KBO리그 통산 세이브 순위에서 357세이브로 압도적인 1위다. 그를 제외하면 300세

이브를 넘긴 투수도 없다.

오승환이 2006년, 2011년 기록한 47세이브는 여전히 역대 단일 시즌 최다 세이브 기록으로 남아있다. KBO리그에서 5번이나 구원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올해 전반기까지만 해도 오승환은 건재함을 과시했다. 전반기 32경기에서 18세이브(2승 2패)를 거뒀다. 블론세이브도 한 차례에 불과했다.

하지만 후반기 들어서는 영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직구 구속 저하가 오승환 부진의 주요 이유로 꼽힌다. 오승환은 구위로 상대를 압도하는 유형의 투수였다. 그의 직구는 구속이 빠를 뿐 아니라 무브먼트도 좋아 '돌직구'로 불렸다.

세월이 지나면서 구위가 예전보다 떨어졌지만, 오승환은 한층 예리하게 기다듬은 슬라이더에 포크볼, 커브를 효과적으로 섞어던지며 최정상급 마무리 투수의 면모를 이어갔다. 오승환의 직구 구속은 전반기까지만 해도 평균 시속 140km 중후반을 찍었다. 지난해 오승환의 직구 평균 구속은 시속 145.7km였는데, 올해 전반기에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7월 들어 구속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7월에 치른 7경기에서 7월 28일 한화전(평균 시속 145km)을 제외하고 나머지 6경기에서 평균 구속이 140km 초반대에 머물렀다. 지난달 31일 롯데전에서도 직구 평균 구속은 시속 143km에 그쳤다. 직구 구위가 떨어지다보니 변화구 위력도 반감됐다.

삼성엔 오승환의 부진으로 뒤틀린 단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규민을 제외하고는 마무리 투수로 나설만한 투수도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여러모로 삼성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김민재, 비공식 데뷔전...이강인과 코리안더비 무산 나폴리 이적 후 첫 친선경기 출전 45분 소화...이강인은 후반에 출전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26)가 이탈리아 프로축구 나폴리 '비공식 데뷔전'을 치렀다.

나폴리는 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카스텔디산그로의 테오필로 파티나 경기장에서 열린 마요르카(스페인)와의 프리시즌 친선경기에서

1-1로 비겼다.

김민재는 이날 경기에 선발 출전해 45분을 소화하며 팀의 전반 무실점에 힘을 더했다.

마요르카에서 뛰는 한국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이강인은 후반 시작과 함께 출전, 김민재와 엇갈리는 바람에 '코리안 더비'는 불발됐다.

전반만 소화했지만 김민재는 탄탄한 수비력과 함께 자신의 기량을 아낌없이 발휘하며 눈도장을 찍었다.

김민재가 뛰는 동안 마요르카는 좀처럼 득점 기회를 잡지 못했다.

나폴리는 전반 8분 비터 오시멘이 상대 수비수의 핸드볼 파울로 얻은 페널티킥을 골로 연결해 앞서갔다.

후반에는 이강인이 준수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중원에서 과감한 돌파로 공격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마요르카는 후반 10분 안토니오 라이오의 골로 균형을 맞췄다.

나폴리는 4일 오전 3시 30분 지로나(이탈리아)를 상대로 프리시즌 경기를 치른다. 마요르카는 16일 0시 30분 빌바오를 상대로 스페인 라리가 개막전을 갖는다.

뉴스



J리그 시간 도스 이와사키 유토 선수의 전반 4분 골 세리머니. (사진=J League International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 '우영우' 세리머니 J리그 日선수, BTS·에스파 윈터 팬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신드롬이 일본 프로축구 리그까지 번졌다.

지난달 31일 일본 시즈오카에 위치한 시미즈 니혼다이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미즈 S 펄스와 시간 도스의 2022 J리그 23라운드 경기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세리머니가 펼쳐졌다.

전반전 4분만에 골을 넣은 시간 도스의 공격수 이와사키 유토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우영우 세리머니'를 펼친 것이다.

우영우와 그의 친구 동그리마가 '땀 포즈'(땀

을 대각선으로 쭉 뻗는 동작)을 취하며 "우 투더 영 투더 우"라고 말하면 "동 투더 그 투더 라미"하고 인사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인사법이 일본 프로 축구장 한 가운데서 골 세리머니로 펼쳐진 것이다.

이와사키 선수는 1998년생이다. 구단 홈페이지에서 K팝(K-POP), 방탄소년단(BTS)과 그룹 '에스파(aespa)'의 윈터를 좋아한다고 기재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제프 유나이티드 이치하라 지바에서 활동 중인 장민규 선수와의 사진을 공유했다.